

학교 설문 설계: 동의·익명성·결과 공개 범위

똑똑 · 에디터 나루 · 발행 2026.10.06

질문지 한 장에도 목적, 참여 방식, 원자료 보관, 결과 발표가 모두 연결됩니다.

똑똑 자체 작성 교육 해설입니다. 본문의 학교·학생·수치·작품은 가상 사례로 명시했으며 실제 학교의 승인·평가·법적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

설문 목적을 정하고 필요한 질문만 남겨요. 참여할 사람에게 쓰임과 공개 범위를 미리 알리고 답하지 않을 선택도 설명해요. 결과를 발표할 때는 작은 집단이나 자유 답변으로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요.

핵심

- 설문 전에는 목적·대상·안내 문구와 학교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다른 약속이며 완전한 익명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자료를 공개할지 요약만 공개할지를 수집 전에 정합니다.

논점 · 의견을 듣는 목적과 부담을 함께 보기

학생 의견을 듣는다는 목표 자체는 넓습니다. “쉬는 시간 공간을 어떻게 고칠까”처럼 바뀔 결정 한 가지로 좁혀야 문항과 결과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AAPOR는 설문이 질문에 맞는 방법인지, 이미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검토하라고 권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같은 설문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응답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점검해야 합니다.

설문의 결과가 모두의 경험을 그대로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응답하지 못한 학생, 질문을 다르게 이해한 학생, 불편해도 말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 수와 조사 방식, 빠진 집단을 설명해야 합니다. “학생 전체가 원한다”라는 문장은 조사 대상을 확인한 뒤에만 쓸 수 있습니다.

참여 안내 · 동의와 참여 의사를 실제 선택으로 만들기

첫 화면에는 누가 왜 묻는지, 답이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원자료를 보며 언제 정리하는지를 쉬운 말로 적습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을 건너뛰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아동이 참여하는 자료 수집에 관한 UNICEF 정책은 의미 있는 동의와 참여 의사, 비밀 보장, 개인정보 관리를 전 과정에서 다룹니다. 이는 학교 설문의 법적 승인 요건을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름을 쓰는 종이 설문은 “익명”이라고 써도 학생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사가 개인 응답을 보지 않아도 되는 목적이라면 응답 수집 방식부터 바꿔 봅니다. 교실에서 답을 강제로 확인하지 않는 방법, 질문을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은 학교의 현재 방침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자료 설계 · 익명이라는 말의 경계

이름을 묻지 않는 설문과 아무도 응답자를 알아볼 수 없는 설문은 다릅니다. 학년, 반, 동아리, 긴 자유 답변을 합치면 작은 학교에서는 누가 썼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OECD의 수집 제한·목적 명시 원칙을 따르면 각 항목을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읽게 됩니다. 결과 공유 계획까지 함께 생각해야 수집 단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상 설계 비교 · 가상 학교: 쉬는 시간 공간 개선 설문

설계 요소	위험이 큰 초안	검토한 수정안
대상 안내	전교생 의견이라고만 적음	조사 대상·기간·응답 수를 명시
질문	이름·반·자주 쓰는 교실·불만을 모두 요구	목적과 무관한 식별 항목 삭제, 일부 문항 선택
응답 방식	담임이 제출 여부와 응답을 확인	미응답 선택과 원자료 열람 범위 안내
발표	반별 자유 답변 전문 공개	큰 묶음의 요약과 대표 의견만 신중히 사용

가상의 설계안입니다. 학교의 실제 승인·동의·보관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질문 문구 · 한 문항에 한 가지를 묻기

“새 침터는 안전하고 편리하죠?”는 이미 좋은 평가를 유도합니다. “새 침터 이용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나요?”와 “안전하다고 느끼나요?”는 다른 질문입니다. AAPOR는 한 문항에 한 개념을 담고 짧고 쉬운 말로 쓰며 유도 표현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학생 몇 명에게 문항의 뜻을 설명해 보라고 부탁하는 사전 점검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 공개 · 원자료를 갖는 사람과 읽는 사람을 구분하기

공개 보고서에는 설문 기간·대상·응답 수·문항·집계 방법을 적어 독자가 해석 범위를 알게 합니다. 반면 개인 응답 전체를 게시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수 집단의 숫자와 긴 서술형 응답은 개인이 드러날 가능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결과 공개 문장도 조사 전에 안내한 범위와 맞아야 합니다.

반례와 한계 · 좋은 의도도 수집의 근거가 되지는 않음

“왕따 문제를 알아보겠다”는 선한 목적만으로 민감한 경험을 일반 수업 설문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 보호 계획과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질문은 단순 공간 만족도 조사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문만으로 어떤 학생이 왜 불편한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적절한 담당자에게 문제를 전달하고 방법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활용 도구 · 작성용 점검표를 직접 만들기

보고서 초안의 첫 칸에 결정할 문제를 적고, 다음 칸에 문항별 필요 이유를 적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참여 안내와 원자료 열람자를, 마지막 칸에는 공개될 표의 단위와 삭제·보관 계획을 적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설문 링크를 만들기 전에 보완합니다. 이 네 칸은 똑똑이 제안한 학습용 양식이며 특정 기관의 공식 승인 서식이 아닙니다.

발표 문장 · 숫자를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맥락

“70%가 찬성했다”는 문장만 있으면 누가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상으로 100명 중 40명만 응답했고 그중 28명이 찬성했다면, 전체 100명의 70%가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28/40이라는 분모와 응답하지 않은 60명이 있음을 함께 써야 합니다. 단순한 비율도 조사 범위를 지우면 전혀 다른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유 답변의 인상적인 한 문장을 제목으로 뽑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문장은 한 사람의 경험일 수 있고 전체 응답의 빈도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이 여러 번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과 중복 처리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표현을 신는 일이 사전 안내한 공개 범위 안에 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공개 표를 만든 뒤에는 원자료와 나란히 놓아 누락이나 합산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분모에 미응답자를 잘못 넣었는지, 자유 응답 하나를 여러 범주에 중복 계산했는지도 살핍니다. 작은 수치 차이도 보고서의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발표 전에 다른 사람이 계산을 다시 따라 해 보게 합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가상 쉬는 공간 설문의 결과 문장 “전교생은 쉼터를 원한다”를 더 정확하게 바꾸고, 공개 전 확인할 항목 두 가지를 쓰세요.

확인 설명

가상 답: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심터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다.” 조사 대상과 응답 수를 함께 쓰고, 작은 집단 표와 자유 답변에 개인이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수치는 조사 뒤에만 넣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원자료를 수업 발표에 붙여도 되나요?

동의의 내용과 안내한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집단·자유 답변의 식별 위험을 다시 검토하고 학교 절차를 따릅니다.

응답률이 높으면 전교생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높은 응답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이었고 누가 빠졌는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원문과 출처

- AAPOR · Best Practices for Survey Research — <https://aapor.org/standards-and-ethics/best-practices/>: Planning Your Survey, Designing your questionnaire, safety/confidentiality/comfort: 질문 목적, 단일 개념, 비유도 표현, 응답 거부·민감 정보·식별 가능성. 한계: 일반 조사 실무 지침이며 학교 승인이나 표본 대표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 UNICEF · Policy on Ethics in Evidence Activities Involving People as Participants or Subjects — <https://www.unicef.org/documents/policy-ethics-evidence-activities-involving-people-as-participants-subjects>: 문서 소개의 meaningful consent/assent, confidentiality, privacy, data management 항목: 아동 참여 자료 수집 전 과정의 윤리 점검. 한계: UNICEF 사업 정책이며 특정 학교의 법적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 OECD · Privacy Guidelines,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Application — <https://legalinstruments.oecd.org/public/doc/114/body-text.en.html>: Collection Limitation 7, Purpose Specification 9, Use Limitation 10: 수집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 밖 사용을 제한한다. 한계: 국제 원칙이며 한국 학교에 대한 법적 허가·예외 판단 자료는 아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school-survey-design>